

http://dx.doi.org/10.17703/JCCT.2021.7.4.195

JCCT 2021-11-24

영상매체의 한국문학 의미화 양상 연구 -드라마 <명동백작>(2004)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of Korean Literature in Video Media -Focused on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손미영*

Son, Mi-young*

요약 우리는 드라마 <명동백작>(2004)을 통해서 드라마가 1950년대 한국문화와 문학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이 드라마는 명동에 주목하여 1950년대의 사회와 문학을 조망한다. 이 드라마는 평범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당시의 사회상을 현실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삽입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또한 시인 이봉구의 시선을 통하여 서로 다른 문학인들과 그들의 문학을 연결시켜서 서사적 완결성을 얻어내는 동시에, 시청자들로 하여금 문학인들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주인공 이봉구는 드라마의 결말에서 다시 등장하는데, 그의 평가는 후대의 평가에 대한 의미 있는 강변이자, 1950년대의 한국문학을 시대적 아픔을 낭만적 정취와 문학적 열정으로 극복하고자 한 결과물로서 의미화한다. 특히 이 드라마는 1950년대 전후(戰後)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와 실감,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와 해설자를 등장시켜 설명한다. 비록 드라마의 직접적인 해설에 의한 제한적인 해석이라는 또다른 함정을 내포하게 하지만,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문학관을 이해하게 하는 데에 주효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드라마 <명동백작>은 영상을 통하여 1950년대의 문학과 문화 풍경을 대중적이고도 진정성 있게 시청자에게 전달한 의미 있는 텍스트이다.

주요어 : 문학, 시, 드라마, 드라마 <명동백작>, 이봉구, 통섭, 표상, 이미지

Abstract We examines the aspect of dramas delivering Korean culture and literature to the public in the 1950s through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2004). This drama focuses on Myeong-dong and views society and literature in the 1950s. This drama not only introduces ordinary people to viewers realistically, but also helps viewers understand by inserting interviews with researchers. In addition, through the gaze of poet Lee Bong-gu, they connect their literature with different literary people to obtain narrative completeness while helping viewers understand the inner side of the literary people. At the end of the drama, Lee Bong-gu's voice is a meaningful riverside for future evaluations, and it means the result of overcoming the pain of the 1950s with a romantic atmosphere and literary passion. Therefore, the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is a meaningful text that delivered the literature and cultural landscape of the 1950s to viewers in a popular and sincere manner through the video.

Key words : Literature, Poem, Drama, Korean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Lee Bong-gu, Convergence

*정회원,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 교수 (주저자)
접수일: 2021년 9월 25일, 수정완료일: 2021년 10월 1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12일

Received: September 25, 2021 / Revised: October 1, 2021

Accepted: October 12, 2021

*Corresponding Author: myshon@kw.ac.kr

Dept. of Ingenium, Kwang woon Univ, Korea

I. 서론

2002년에 개봉한 영화 <토탈 이클립스>는 프랑스의 시인 베를렌드와 랭보의 삶을 격렬하게 영상화한 작품으로 꼽힌다. 이 영화는 두 시인의 열정과 신념을 통해 시인의 삶과 문학세계라는 중요한 주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테면 자유분방한 랭보의 삶과 가정이 있는 베를렌드의 삶을 대조하는 한편으로 영화의 전개 과정에서 이들의 시편을 삽입함으로써 시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시세계가 맺는 관련성을 은유하는 것이다. 이는 한 시인의 삶이 그가 창작하는 문학 작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시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당대의 문학장과 사회상을 영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 관객들에게 문학에 관한 흥미로운 체험을 하게 한다.

한국에도 영화 <토탈 이클립스>의 전략처럼 대조적인 시세계의 시인들에 집중함으로써 당대 한국 사회와 문학장, 그리고 시인의 삶과 내면 풍경에 관하여 표현하고자 한 드라마가 있다. 바로 2004년 EBS에서 제작한 문화사 시리즈 중 첫 번째인 <명동백작>이다. 이 드라마는 영상을 통하여 당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을 비롯하여 개인들의 삶, 특히 문학인들의 삶을 조명한다. 그리고 문학인으로 대표되는 지식인과 이들 주변의 예술인들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종종 시선을 던짐으로써 당시의 한국 사회에 대한 현실적이고도 실감있는 재현을 시도했다.

EBS의 문화사 시리즈 <명동백작>은 교육방송으로서의 EBS의 정체성과 교육방송의 참신하고도 흥미로운 시도로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명동백작>의 성취는 후속작인 <지금도 마로니에>으로 이어졌다. 김지하 시인과 김승옥 소설가를 중심으로 한 1960년대의 청춘들을 다룬 <지금도 마로니에>는 <명동백작>에 비하면 비교적 부족한 평가를 얻었으나, <명동백작>의 성취를 증명해주는 것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EBS가 서사화의 방식으로 시인과 한국전쟁 직후의 문학장을 형상화하여 대중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교육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자 한 시도로서 <명동백작>의 의의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는 EBS 문화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인 <명동백작>(2004)을 중심으로 한 편의 드라마가

영상과 서사를 통하여 1950년대 전후(戰後)의 사회와 문화 풍경을 포착하고 의미화하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드라마는 김수영과 박인환이라는 1950~1960년대 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동시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과 이봉구, 오상순, 전해린, 김관식과 같은 당대의 문인들을 새로이 조명한다. 한 사람의 문인에게 집중하기보다 당대를 폭넓게 조망하는 드라마의 시선은 한국의 문학을 한 두 사람의 문인의 작품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문학의 관점들이 통섭하고 소통하여 이뤄내는 다양한 목소리의 한 풍경으로 의미화하고, 한국의 문화를 다각도에서 바라보게끔 하여 대중의 인식을 풍요롭게 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있다.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시도는 한국문학을 시대와 사회를 한 사람의 문인이 돌파해 나가면서 만들어낸 고통과 아름다움의 산물로서 영상화하고 더 나아가 1950년대 한국의 문단을 다양화하는 과정이다.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예술이 한국의 문학가들을 서사의 전면에서 내세움으로써 영상의 서정성을 획득하고 있음을 검토한 기존의 논의들[1][4]을 고려한다면, 이 드라마의 시도는 한국문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의미화의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드라마 <명동백작>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인물의 구성과 스토리텔링의 방식을 통해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주요 인물이자 제목의 모티프가 되는 인물인 이봉구를 통한 1950년대 문학장의 의미화 과정을 해석하고자 한다.

II. 드라마 <명동백작>의 구성과 전략

드라마 <명동백작>에는 이봉구를 비롯하여 박인환, 김수영, 오상순, 전해린 등과 같은 1950년대의 문인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들 문인들은 명동을 배경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한국 문단이 교류하고 창작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드라마 속에서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 드라마는 시인 박인환과 김수영을 서사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여 진행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학세계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두 문인이 전쟁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와 대면하고 문학세계를 구축하는가에 대한 흥미로운 장면들을 제시한다. 즉, 김수영과 박인환이라는 상반된 시인들을 대비하여 시인의 세계관

과 시세계의 관계라는 어려운 문학적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이다.

<명동백작>의 초반 방영분에 해당하는 1~5회분은 휴전 직후 폐허가 된 서울로 돌아오는 시인들과 전쟁기 동안 그들이 겪었을 고초를 제시하는 것에 할애되어 있다. 첫회분에서 드라마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폐허가 된 명동과 전쟁 직전까지 문인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던 명동의 모습이다. 이념의 문제로 다소의 충돌은 있으나 자유롭게 문학관을 토론하는 문인들의 모습은 전쟁 직후 폐허가 된 명동 거리의 모습과 대비되며 한국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즉, 대비의 방식을 통해서 드라마는 한국문학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 사건의 참혹함을 그대로 이미지화 한다.

특히 문인이 아닌 인물들의 등장은 한국전쟁이 가져온 참화가 한국문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분단과 이어지는 냉전시대라는 역사적 아픔을 효과적으로 제시한다. 이를테면 피난 중에 아들을 잃어버린 북한 출신의 부부를 통해서 전쟁 직후 서울의 풍경을 제시하는 것이다. 강한 생활력으로 서울의 거리에서 시체를 치우며 살아가거나 전쟁으로 비어 있는 집을 치우고 살기 시작하는 황씨 부부의 모습은 전쟁 직후 서울이 겪었을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는 전후의 한국문학이 사회적, 물질적으로 얼마나 척박한 환경 속에 놓여 있었는가를 역설한다. 또한 황씨 부부는 월남민이라는 측면에서 당시 한국 사회에서 북한 출신의 피난민들이 어떠한 시선에 놓여 있었는가를 반증하기도 한다. 현재까지도 한국문학에서 주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반공주의가 당대 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외에도 드라마는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두닦이 소년이나 미군을 통해 수입하였을 영문 잡지를 판매하는 소년과 같은 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나 카페의 마담을 통해서 1950년대 후반의 한국 사회의 풍경을 생생하게 제시한다. 이는 드라마가 단순히 문학인들의 전기나 그들의 시세계에 집중하기 보다 당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문학을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문인과 문인들 사이의 에피소드를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된 명동 거리 속에서 펼쳐냄으로써 드라마의 생동감을 획득한다. 이로써 문학이 문인들의 삶과 고뇌를 통해서 완성되나 그 고뇌가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고뇌 어린 목소리가 당대의 사회

에 다시 전달되는 순환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제시한다.



그림 1.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1.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1950년대 후반의 한국문학을 역사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조망하는 드라마의 시도는 기획 제목대로 ‘문화사’를 영상으로 전달하고자 한 EBS의 의도에 따른 것일 터이다. 교육이 주요 역할인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미드로 대중에게 의미 있는 시각과 지식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기획은 기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게다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문학과 문인의 삶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편견 없이 전달하기 위해서 드라마는 전문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적절한 구성의 전략이 필요했다. 그래서 드라마는 당시 연구자들이나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드라마 중간에 삽입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즉, <명동백작>은 한국문학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드라마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전문성과 공신력을 더한다. 이를테면 공초 오상순이 등장하는 장면 이후에는 전문가가 등장하여 오상순에 관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식민지기 부역문인과 관련한 에피소드에서는 친일 또는 부역 문인이라는 꼬리표가 당대 사회에서 가진 영향력에 관하여 설명하는 방식이다. 심지어는 김수영의 아내이자 드라마의 초반에서 주요 에피소드를 담당하였던 주인공인 김현경의 등장은 이 드라마가 실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가 실제 인물의 고백과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기묘한 틈새를 보여준다.

이 드라마는 대중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복잡한 조건 속에서 제작되었다. 이러한 EBS 드라마의 강점이자 한계가 단적으로 드러난 요소가 바로 해설자의 분량이다. 기존 논의[5]가 지적하였던 것처럼, 드라마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등장하여 서사를 설명하고 의미화하는 해설자의 존재는 이 드라마의 창의성과 텍스트성을 약화시키는

약점을 노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해설자의 해설과 연구자들의 인터뷰를 삽입하고 있는 것은 드라마의 대중성과 교양 방송국이 제작한 드라마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획득하기 위한 드라마의 전략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1화의 시작 부분에서 해설자는 명동으로 돌아온 이봉구가 시공관의 지배인과 조우하고 감격하다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이어지는 해설자의 설명은 당시 시공관이 연극과 영화 상연을 비롯하여 발레와 전통 무용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공연을 상연하였던 중요한 공간이었음을 설명하고, 이로써 시공관이 명동 거리에서 차지하는 상징적 의미와 문화사적 가치에 관해서 설명한다. 이러한 해설자의 설명은 실존 문인이지만 동시에 드라마 속의 인물이기도 한 이봉구가 시공관 지배인과 마주하고 느끼는 감격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음을 시청자들에게 설명한다. 시간적 거리로 인해 생긴 감성적 차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 라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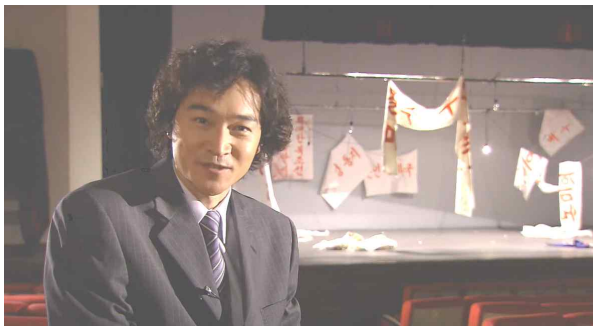


그림 2.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2.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또한 이 드라마는 실존하는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문학세계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즉, 현존하였던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배경 속에서 문학 작품이 어떻게 창작되고 독자들에게 수용되었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시인 한 사람의 내적 고뇌와 창작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 드라마는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시인의 삶을 조망할 뿐만 아니라, 명동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원고가 ‘청탁’되고 청탁된 원고가 잡지에 게재되며, 게재된 작품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인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시세계를 구축하는 예술가이지만 동시에 청탁 받고자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필하며, 원고료를 받아 일상을 영유하는 생활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명동백작>은 한 사람의 시인의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명동’이라는 실존하였던 공간을 선택하고 이를 의미화한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는 다양한 어려움과 마주한다. 1950년대 전후(戰後)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와 실감,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그 어려움이다.

드라마는 이 어려움을 전문가와 해설자의 등장을 통해 해소한다. 비록 드라마의 직접적인 해설에 의한 제한적인 해석이라는 또다른 함정을 내포하게 하지만, 맥락 속에서 인물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문학관을 이해하게 하는 데에 주효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시청자는 전쟁 직후의 폐허가 된 거리와 강력한 반공주의와 친일 부역 논란이라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김수영이 왜 ‘빨갱이’라는 말에 미쳐갈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는 드라마의 중후반부의 4.19 혁명에서 김수영이 느낀 감격과 다소 과도하게까지 보이는 도취가 어디에서부터 배태되었던 것인가를 가늠하게 한다. 기존 논의[6]에 따르면 4.19는 역사적 사건이자 문학적 사건으로서 문학이 정치를 사유하고 전유하는 방식에 관한 유의미한 질문을 제시했다. 특히 김수영은 한국 현대사에서 4.19를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오롯이 받아들임으로써 그것의 시적 반영을 자신의 문학세계와 긴밀히 연결시켜 완성해낸 경우이다[7]. 즉, 김수영의 시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유의지가 그의 삶에서, 그리고 당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다.

‘연속’이라는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상 시청자들은 드라마 속 배경과 맥락에 익숙해지면서 인물의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 시청자들은 점차 드라마 속 서사와 축적된 해설을 통해 전후 한국 사회와 한국 문단의 상황에 익숙해지고, 김수영 또는 박인환이라는 문인들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들의 문학관과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드라마가 중반부에 접어들면서 해설자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었다가, 서사의 정리와 드라마의 의미가 제시되는 결말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강화된다.

III. ‘명동백작’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한국문학의 ‘낭만 시대’

드라마 <명동백작>이 전후 한국문학장을 형상화하는 전략에 있어서 주목할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명동’이라는 공간과 드라마의 제목이자 실존하는 인물인 ‘명동백작’ 이봉구일 것이다. 이봉구는 영원한 청춘의 아이콘이자 명동 담론의 대변자로 이미지화 되어 있는 인물이다. 식민지시기에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명동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던 이봉구의 문학세계는 명동에서 보낸 그의 일상과 문인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 소설과 수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순간들이 존재한다. 이는 기존 논의[8]가 이봉구의 문학을 ‘함량 미달의 문학’[5]으로 평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문학 작품에는 당대 문인의 일상과 고뇌, 당시 사회의 풍경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사소설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이봉구의 문학은 명동에서의 기억과 풍경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인들이 명동의 카페를 중심으로 문학장을 형성하고 관계를 구성하는 과정을 재구할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식민지기 이후 명동은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고급 상품과 공산품에 대한 소비와 수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으며,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하고 있었다[9]. 명동의 카페를 중심으로 문인들 사이의 문화적 지리지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문학인들이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발표하며 향유하는 과정이 이뤄지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명동이라는 공간성에 주목하여 당대의 문화지리를 포착함으로써 전후 한국문학과 문화를 재구성하고자 한 드라마가 이봉구에게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기존의 논의[10]가 지적한 바대로 이봉구의 문학 작품에서 묘사되는 명동은 주로 식민지기의 풍경이다.[7] 하지만 드라마는 첫화에서부터 이봉구를 등장시킴으로써 드라마 속의 그의 존재감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화에서는 노쇠한 그에 의해 회상되는 명동을 통해 전후 문단의 의미화를 시도한다. 이는 그가 주로 식민지시기의 ‘문학청년’으로 활약했던 명동의 풍경에 주목하고, 1950년대 이후에도 그 시기의 풍경을 향수하고 현재의 자신을 되돌아보는 이봉구의 문학세계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마는 청춘의 아이콘으로 고정화되어 있던 이봉구를 불러냄으로써 그의 문학세계를 재발견하고자 하였다고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소수의 잘 알려진 시인이거나 소설가로서만 기억되는 전후 문학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더욱

폭넓게 하는 데에 기여하였음은 분명하다.

드라마 속 이봉구는 문인과 문인을 연결하는 일종의 선으로 기능한다. 예를 들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김수영의 에피소드를 제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봉구가 박인환을 명동에서 만나 그의 소식을 묻고, 서사는 자연스럽게 박인환과 김수영의 조우로 흘러가는 형식이다. 공초 오상순이 김수영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하는 대사, “자네는 문학보다 사람 농사가 제격이야”라는 말은 이 드라마 속에서 이봉구의 역할이 문인들을 연결하는 연결선임을 반증한다. 그의 소설을 통해서 당시 문인들의 생활상과 명동에서의 일상을 포착할 수 있는 것처럼, 드라마 또한 그의 시선을 따라 문인들의 일상으로 투입하고 그들의 내면을 가늠한다. 그러므로 <명동백작>에서 이봉구는 드라마의 제목 그 자체이자 카메라의 시선을 대변하는 존재이다. 드라마는 그가 지닌 성품에 초점을 맞춘다. 그 특유의 유연하고 넉넉한 성품이 다양한 사람을 아우르는 포용력으로서 전후 한국 문단의 문인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드라마는 일반과 학계에 알려진 ‘청년’으로서의 그의 이미지 대신 넉넉하고 유연한 중년 신사의 이미지로 그를 형상화한다.

정작 포용력 있는 중년 신사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이봉구의 시선에 의해 포착되는 문인들이 대부분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들로 그려진다. 김수영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수감 기억으로 인해 ‘빨갱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는 평소에도 다소 예민하고 격한 성격인데 이 ‘빨갱이 콤플렉스’가 자극될 때에는 과도한 인물로 변모한다. 칩거하거나 사라지고 때로는 히스테릭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한편 김수영과 함께 드라마에서 주요한 인물로 주목되는 박인환은 낭만을 아는 신사이지만, 이로 인해 가족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가장이다. 세련된 옷을 사기 위해서 월급을 탕진할 뿐만 아니라 물건을 저당 잡히기까지 하는 그의 행보는 현재의 시선으로 본다면 허영에 휩싸여 가족들을 희생시키는 무능력한 가장에 다름아니다.

하루 종일 카페에서 담배만 피우는 공초 오상순이나,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고 결혼하기 위해 자살 소동까지 벌이는 김관식, 술을 마시고 구토하면서도 지지 않으려 애쓰는 전해린과 같은 인물들은 이 드라마에서 예민하

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예술가’의 고정관념을 일견 그대로 그려낸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현재의 시선에서 ‘문학가’의 ‘기행’이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드라마는 이봉구를 넉넉한 성품의 포용력 있는 남성으로 형상화하고, 그의 시선을 거쳐 문인을 소개함으로써 그 당혹감을 증대한다. 심지어는 술에 취한 이봉구가 큰 소리를 내는 장면마저도 황씨 부부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서사 장치를 배치하는데, 이로써 이 장면은 이 드라마가 그를 포용력 있고 정의감도 있는, 신뢰할 만한 시선의 주체로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순간으로 기능한다.

이로써 이봉구에 의해 포착된 명동은 문인들이 문학관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고, 세상을 향해 발화하며, 소통하고 문학 작품을 청탁하고 창작하는 ‘낭만의 거리’로 묘사된다. 드라마의 1회차에서 해설자가 호명하는 ‘낭만의 거리’인 명동은 이봉구의 시선에 의해서 구체화된다고 서술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드라마에서 이봉구의 역할은 드라마의 후반부에 두드러지는데, ‘낭만의 거리’ 명동과 그 시대가 저물고 난 이후 변해버린 명동을 거닐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1950년대 후반의 문학과 그 시대를 ‘낭만이 살아 있는’ 문학과 시대로 의미화하는 까닭이다.

드라마의 마지막화인 24화에서 이봉구는 노쇠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림 3의 장면에서 이봉구는 문인들의 후일담을 전하며 신문기와 함께 명동을 걷는다. 노년의 그는 신문기와 함께 1980년대로 추정되는 명동의 거리를 걸으며 전후의 한국문단과 그 시대를 회상한다. 이때 그의 시선을 따라서 드라마는 변화한 명동의 풍경을 조망한다. 드라마가 방영되었던 2004년에 가까운 명동의 풍경은 시청자로 하여금 이봉구의 회상과 향수를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현대의 변화한 명동이 1950년대 후반에는 낭만이 남아 있던 문인들의 거리였



그림 3.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3.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음을 다시금 감촉하게 한다.

변한 명동의 거리를 걷는 이봉구에게 동행한 기자는 1950년대 문인들에 관해 묻고, 그는 질문에 답한다. 바로 그림 4의 장면이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가 포착하였던 문인들의 생이 어떻게 마감되었는지가 제시된다. 김수영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김관식은 지나친 음주로 인해 몸을 망쳐 요절했다.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박인환의 아내는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덧없이 사라진 문인들의 생애에 관하여 기자는 시청자들을 대신하여 이봉구에게 묻는다. 왜 그들이 술을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질문에 이봉구는 분노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황씨 부부를 대변하던 순간처럼 그의 분노는 50년대 문인들의 삶과 그 내면의 상처를 대변한다. 그것은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본 적이 없는 사람은, 우정에 배신당하여 복으로 끌려가다가 도망친 설움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혁명에 환호하던 것도 잠시 군인정권에 자유를 빼앗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그 시대만의 정서이다.



그림 4. 드라마 <명동백작>의 한 장면
Figure 4. A scene in a drama <The Count of Myeong-dong>

이봉구의 분노를 통해 술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초극하고자 했던 시인들의 삶은 시대의 아픔이자 당대 문학의 아픔으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강하게 애증할 수밖에 없는 낭만으로 형상화 된다. 드라마가 ‘명동백작’ 이봉구의 시선으로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이처럼 서로 다른 문인들과 그들의 문학세계를 연결하여 1950년대의 문학장을 낭만의 풍경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였다.

IV. 결 론

우리는 2004년 E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 <명동백작>을 분석함으로써 드라마가 영상과 서사를 통하여 당대의 문화사적 맥락과 문인들의 문학세계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양상을 검토하였다. 이 드라마는 한 사람의 시인이나 소설가에 집중하기보다 명동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1950년대 전후의 시대상과 문학장을 조망하였다. 또한 서사적 흥미와 함께 교육적 효용성을 한데 어우르고 있다는 점에서 드라마가 문화를 대중에게 이해시키고 문학적 인식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였던 유의미한 예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드라마 <명동백작>은 드라마의 구성에서부터 대중성과 교양을 동시에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취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사’를 영상과 서사로서 전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에 맞게 한 사람의 문인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간 다양한 인물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은 문학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척박한 전후의 시대를 살아갔을 가장 평범한 인물들을 등장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인 이봉구가 서울로 귀환하는 와중에 만난 황씨 부부를 비롯하여, 명동 거리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 드라마가 취한 시각을 적절하게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드라마는 연구자와 해설자의 해석을 삽입함으로써 이해와 해석의 방향을 시청자에게 제시한다. 이는 인물들의 문학관과 그들의 선택을 시청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해설은 드라마 속의 문인들이 실존하였던 인물이라는 감각을 강화하고 김관식이나 오상순과 같이 비교적 덜 알려진 문인들에 대한 지식 또한 전달하여 시청자들의 감상 폭을 넓히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드라마에 삽입된 해설이 비록 의도된 해석으로 드라마와 인물들을 이끈다는 단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가 해설자의 삽입을 선택한 것은 이같은 효용성 때문이다.

또한 드라마 제목의 모티프가 된 인물이자 드라마 속에서도 등장하는 문인 ‘명동백작’ 이봉구는 서사를 매끄럽게 진행시키는 동시에 드라마가 조망하는 전후의 한국 문학과 문화를 의미화한다. 즉, 이봉구는 명동과 문인들이 거주하는 사적 공간을 이동하면서 문인과 문인을 연결한다. 또한 이봉구의 정감 있는 시선으로 포착된 문인들은 이들의 기행이나 과도한 성정을 문학적

열정과 세계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과정을 거쳐 시청자들은 한국전쟁과 반공주의라는 시대를 거치는 1950년대 문인들의 상흔과 문학세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삶에 공명한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드라마는 이봉구의 목소리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드라마의 마지막회는 이봉구의 시선과 회고에 의해 정리되며,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젊은 신문기자와의 대화 속에서 의미화된다. 편견과 오해가 남아 있는 후대의 평가에 강변하는 그의 목소리는 그 시대를 직접 살았던 인물의 목소리기에 1950년대 문인과 그들의 삶에 대한 향수이자 의미화로서 드라마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처럼 드라마 <명동백작>은 명동을 배경으로 다채로운 방향에서 당대의 문화를 포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인들의 서사와 캐릭터를 균형감 있게 구축하여 대중들의 반향과 교육적 효용을 동시에 획득하고 있다. 양 면을 모두 아우르고자 한 드라마의 시도는 해설자나 연구자 및 관련 인물들의 인터뷰를 삽입하면서 고정된 이해와 해석의 방향을 시청자에게 제시한다는 약점에서는 자유롭기 어렵다. 그러나 명동을 거니는 청춘의 아이콘으로만 소수의 연구자들에게 인식되었던 한 사람의 시인을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성하고, 그의 시선을 통해 당대의 문화와 문인들의 삶을 낭만적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였음은 이 드라마의 분명한 성취이다.

References

- [1] Son, Mi-young, “A Study on The Use Pattern of Yun Dong-jy in the movie <Dongju>,”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2*, 2018, pp.59-66.
- [2] Son, Mi-young, “A Study on the usage patterns of Yun Dong-ju’s Poetry in the musical <Yun Dong-ju, Shhoot the mo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3*, 2018, pp.85-92.
- [3] Son, Mi-young, “A Study on the Yi Sang Representation in Media -Focusing on the cinema <Secrets of The Architecture Infinite Cube> and the drama <Yi Sang, More than Yi Sa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5 No.4*, 2019, pp.29-36.
- [4] Son, Mi-young, “A Study on the Use of Lee

- Yuk-sa in the media—Focused on the drama <Climax>,”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6 No.4*, 2020, pp. 31-38.
- [5] Hong, Seong-il, “<The Count of Myeongdong> and <Now Marronnier> : Expectations and possibilities for EBS brand dramas,” *Visual Culture Vol.10*, 2005, pp.72-82.
- [6] Kim, Young-sam, “The possibility of process of library truth,”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63*, pp.161-183.
- [7] Kwak, Myoung-Suk, “4.19 Revolution and literary transformation of Kim Soo-young,” *Studies of Korean & Chinese Humanities No.46*, 2013, p.76.
- [8] Min, Do-jeong, “A Study on the Placeness of Myung-dong in 1950s: Based on Bong-gu Lee’s Essay, <The Count Myungdong>,” Master’s thesis of Dongguk University, 2008.
- [9] Im, Jeong-yeon, “The Representation of ‘Cheongchun (Youth)’ and Politics of Sensibility in Lee Bong-Gu’s novels,” *Korean Literary Theory And Criticism Vol.61*, 2013, pp.323-345.
- [10]Kwon, Kyoung-Mi, “The Cultural Class and the Narrative of the Space Nostalgia Myeongdong,” *Journal of Humanities No.60*, 2016. pp.275-301.

※ 이 논문은 광운대학교 2021학년도 연구비로 지원되었음.